

社會主義 커뮤니케이션 從屬論

康 賢 斗*

<目 次>	
I. 국제신정보질서와 사회주의 미디어	IV. IOJ의 사회주의 언론이념의 전파
II. 사회주의와 매스미디어의 이념과 이론	1. IOJ의 역사
III. 사회주의와 국제미디어 —TASS	2. IOJ의 조직
	3. 세계 사회주의 언론이념의 중심기구로서의 IOJ

I. 국제신정보질서와 社會主義 미디어

사람들은 두 가지의 地圖를 갖고 세계와 사물을 認識한다. 하나는 地理的 地圖이고 또 하나는 心理的 地圖이다. 地理的 地圖는 지구를 물리적으로 축소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의 실체, 사물의 실체와 어느정도 모습을 같이 한다. 그러나 心理的 地圖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心理的 地圖는 Lippmann이 말하는 「the World Outside」에 대한 「a picture in our heads」⁽¹⁾의 모습이며 Atwood와 Bullion이 말하는 「mental picture」인 것이다(Atwood and Bullion, 1982). 이러한 心理的 地圖는 사람들마다의 머리속, 마음속의 지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반드시 하나의 그림일 수 없고 같은 모습일 수 없다. 자연 物理的 「實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같은 心理的 실체일 수 없다. 언제나 地圖를 만드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들어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心理的 지도는 부정확한 지도이다. 이런 심리적 지도는 지리적 지도보다 더 옥더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높아져간다. 우리는 거의 心理的 지도를 갖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지도중의 하나가 매스 미디어이다. 우리는 현

* 서울대 사회대, 신문학

(1) Walter Lippmann, *Public Opinion*의 Chapter I., New York: Harcourt Brace, 1922.

대세계의 사회적 사실을 인식할 때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는 바 크다. 매스 미디어가 그려내는 세계의 모습, 사회의 모습이 곧 우리의 세계, 우리의 社會가 된다.

오늘날 세계적 규모로 心理的 地圖의 역할을 하는 매스 미디어가 있다. 이들 세계의 미디어인 세계적 신문, 세계적 방송, 세계적 통신사들은 우리의 맨탈 매프(mental map)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사건의 인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준다. 이들을 통해서 世界에 대한 大衆的 心理의 地圖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세계의 미디어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며,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세계적 心理地圖는 5개의 국제통신사라 하겠다.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에 의한 AP, UPI, Reuter, AFP 등 4대 자본주의 국제통신사와 소련에 의한 TASS의 사회주의 국제통신사이다. 오늘날 거의 이 다섯개의 국제통신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국제통신사들이 세계와 사건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가는 세계인의 마음속에 세계와 사회에 대해 갖는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매스 미디어에 그려진 세계의 모습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새롭게 국제문제로 등장한다. 오늘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국제 言論에 나타난 세계의 모습이 심히 부정확하고 불공평하다고 비판한다. 선진 제1세계 국가들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그려져 있고, 후진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그려져 있어 世界人の 認識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근래에 와서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와 같은 국제적 뉴스와 정보의 흐름, 문화와 지식의 흐름의 매스 미디어 구조는 국가간의 상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제3세계의 사회와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더 균형있고 쌍방 상호 흐름의 미디어구조로 보다 「정확한 地圖」의 기능을 하는 미디어 체제로 재개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를바 「신국제정보질서」의 구도이다.

유엔이나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현재의 세계 매스 미디어를 극히 소수의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제3세계는 선진국의 세계적 미디어에 심한 종속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 대한 제 3 세계의 미디어의 심한 종속상황에서 제 3 세계는 제 1 세계 뉴스와 문화의 수용을一方的으로 강요받는다. 심지어 제 3 세계는 자신의 이야기마다 자신의 言語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없고 모든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비판한다. 거의 20년간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가 줄곧 주요 의제로 되어왔다.

국제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미디어의 종속문제는 국제회의에서의 정치적 논쟁이나 이념적 대립 뿐 아니라 理論的으로도 연구를 기울였다. 세계의 여러 국내 言論들이 국제 미디어에 얼마만큼 종속적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이제는 적지 않다.

일찌기 IPI가 미국의 105개의 신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이들 신문의 外國 뉴스의 3/4 이상이 국제통신사에서 공급하는 뉴스로 채워져 있음이 발견되었다(IPI, 1953). Hart도 신문의 외국 뉴스는 국제통신사에 의해 크게 지배되고 있음을 알아낸다. 즉 미국 오하이오주의 6개 신문을 분석한 결과 65.2%가 AP, UPI의 기사였고 주로 서방 제 1 세계에 관한 뉴스였다(Hart, 1953:541-543). Galtung과 Ruge는 노르웨이 신문 뉴스 분석에서 외국뉴스의 87%가 국제통신사에서 공급한 것임을 알았다(Galtung, 1965). Schramm과 Atwood는 아시아 14개 신문의 내용분석에서 제 3 세계에 관한 뉴스의 반 이상이 국제통신 뉴스였음을 밝혔다(Schramm and Atwood, 1981)

Boyd-Barrett는 국제통신사가 국내 신문 방송에게 이 같이 외국에 대한 뉴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더 중요하다거나 긴급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agenda-setting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통신사는 각국의 국내의 언론에게 어떤 뉴스를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느정도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직접 말해줄 뿐 아니라 보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까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Oliver, 1980). Gieber는 신문사 외信部長들을 상대로 한 調查에서 통신사가 外信部長들에게 중요한 뉴스를 지정해 주는 recommender of news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Gieber, 1956: 423-432) Liebes도 이와 비슷한 연구에서 신문의 agenda-setting 기능을 말했다(Liebes, 1966:434-442).

원래 미디어의 agenda-setting 기능은 Cohen에 의해 시사되었으며 (Cohen, 1963) McCombs와 Show에 의해 구체적인 미디어 효과론의 가설로서 주장된

이래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McCombs과 Show는 1968년 미국에서 있었던 한 선거운동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것과 신문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기사내용과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이 두 연구자는 신문은 독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어떤 뉴스가 독자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하고 토론해 봐야 할 가치가 있는 이슈인가 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 있음을 알았다(McCombs and Show, 1977:1-18). 미디어의 이 같은 agenda-setting 기능은 McLeod(1974), Weaver(1975:458-472), Show와 Bowers(1973), Atwood(1978:570-576) 등에 의해 계속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연구였지만, agenda-setting은 점차 국제적으로도 연구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선진국의 국제미디어가 세계의 국내미디어, 특히 제3세계의 국내미디어에게 갖는 agendasetting은 미디어의 종속론에 대한 또 다른 규명이기도 하다.

예컨대 AP, UPI, Reuter, AFP, TASS 등 세계의 대통신사로부터 국제뉴스를 대부분 공급받는 세계각국의 국내신문과 방송들은 이들 국제미디어가 지시하는 데 따라 뉴스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판단하며 이를 세계의 미디어가 정해주는 데에 따라 세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결국 세계통신사들은 각국의 국내 言論에 대해 agenda-setting 기능을 하여 이는 결국 각국의 국내 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agenda-setting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국제미디어는 각국의 국내미디어와 국내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gate-keeping 역할을 한다 하겠다. 즉 White가 발견한 바 뉴스 흐름에 있어서 gate-keeper의 존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도 나타나며 국내뉴스의 취사선택에도 작용한다(White, 1950). Hester(1974)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gate-keeping 과정과 작용이 너무나 뚜렷하다고 말하면서 이 연구의 유용성을 강조하였고(Hester, 1974:218) Bailey와 Lichtry는 개인보다 사회조직으로서의 gate-keeper를 논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이 즉 gate-keeper이다」라고 말하면서 조직인으로서 개인은 시스템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뿐이며 그 결정은 조직의 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Bailey and Lichtry, 1972:221-229). 그런데 조직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직의 정치·경제

적 성격에 따라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통신사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국제커뮤니케이션 과정의 gate-keeping의 성격도 달라질 수가 많았었고 그런 점에서 세계言論의 이데올로기적 gate-keeping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다.

기이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의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 종속론에서는 자본주의 국제미디어의 질서와 종속론의 문제만 제기되어 왔고 사회주의 국제미디어의 질서와 종속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학문적 연구나 과학적 분석은 더욱 빈약하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국제미디어의 문제에 대한 주요내용을 Bullion(1982)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즉 정보의 흐름은 불균형적이다. 서방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흐르는一方性일뿐 아니라 뉴스의量에 있어서도 서방선진국 뉴스가 거의 지배적이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서방 독점이 문제다. 미국·영국·프랑스가 국제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다. 뉴스 내용은 자본주의적 상업뉴스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언제나 센세이셔널리즘의 보도이다. 제3세계의 뉴스는 내란, 쿠데타, 기근, 부패 등 부정적인 뉴스 뿐이다(Bullion, 1982:12).

Bullion의 요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종속론에서 세계 뉴스를 지배하는 선진국에서 소련등 사회주의 주요 국가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의 미디어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제미디어인 TASS 통신사에 대한 종속적 구조는 언급이 없다. 서방국제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이데올로기성격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제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다.

이에 대해서 Sussman은 제3세계의 서방 국제미디어만의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言論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는 소련에 의해 마련되며 그 적절적인 공급자는 사회주의言論 연구의 본부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라고 Sussman은 밝히고 있다. Sussman은 IOJ를 모든 자본주의 미디어종속론의 이론과 운동을 지휘하는 Marxist center라고 하였다(Sussman, 1977:50-55). de Sola Pool은 제3세계의 정치적 후진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정치적 후진성은 사회주의言論 이데올로기와 유사한言論 이데올로기를 갖추고 있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言論이 그러한 것처럼 국가의 커뮤니케이트權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free flow of information」이라는 서방의 자유

유통에 저항하게 된다고 분석한다(Pool, 1981:32-42).

Sussman의 Marxist Connection論이든 de Sola Pool의 反美論이든 현재의 국제신정보질서論은 특징적으로 볼 때 세계 뉴스의 광장이 西方의 四大통신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西方 4대세계통신사에만 집중되고 있음을 본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세계 5대 통신사 중에서 美國의 AP, UPI, 英國의 Reuters, 프랑스의 AFP에 관한 연구와 이들의 세계뉴스 장악이라는 서방통신사의 뉴스에게모니에 관한 연구였지 5대세계통신사 중 또 하나의 주요 통신사인 소련의 TASS 통신사에 관한 문제의 지적이나 세계 뉴스의 장악에 대해서는 연구는 물론 언급도 많지 않다. 실제로 있어서 TASS는 西方의 4대통신사 못지 않게 아니면 더 많은 뉴스를 장악하고 더 강력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데도 이 부문의 연구는 거의 개척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社會主義의 뉴스 흐름의 「新질서」와 社會主義의 미디어 종속론에 관한 연구와 시작에 대한 학문적 필요가 절실하다.

또, 지금까지 국제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미디어 종속론을 실증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대부분 국제미디어의 내용과 국내미디어의 내용의 높은 상관관계성을 들어 국내미디어의 국제미디어에 대한 종속적 상황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즉 국제미디어의 국내미디어에 대한 agenda-setting 기능에 대하여 연구 촛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국」의 미디어 종속은 「중심국」의 미디어가 세계 미디어의 독점이라는 국제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들의 미디어 이데올로기의 社會化 과정에서도 연유하는 것이다. 즉 중심국의 言論理念을 주변국의 言論人們이 內面化함으로써 뉴스가치의 판단이 중심국의 言論人과 주변국의 言論人이 서로 共有하게 됨으로써 중심국적인 뉴스가 자연스럽게 주변국의 言論에 수용되어진다. 이와 같은 뉴스 가치판단의 유사성과 공유성은 韓國과 美國의 言論人们的 뉴스 선택의 비교연구에서 나타났다. 1987년 미국 Cleveland 신문기자가 선택한 국제뉴스 항목과 한국의 조선일보 外信記者가 선택한 국제뉴스와 높은 유사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Kang and Lee, 1986:54-560). 결국 言論人们的 직업적 社會化(professional socialization)와 言論理念의 內面화가 미디어종속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본 연구는 社會主義의 言論理念을 살펴보고 社會

主義 言論理念에 의한 뉴스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사회주의 국제통신사인 TASS의 출현과 그 특성을 걸고 끝으로 社會主義 言論 이념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言論人の 社會主義的 직업적 社會化의 중심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서, 社會主義 미디어 종속의 문제를 다룬다.

II. 社會主義와 매스 미디어의 理念과 理論

Fred & Siebert, Theodore A Peterson, Wilbur Schramm 등 3人の 학자에 의하면 세계의 言論理論에는 권위주의 言論理論, 自由主義 言論理論, 社會責任 言論理論, 共產主義 言論理論 등 4개의 言論理論이 있다. 이른바 「言論의 四理論」(Four Theories of the Press)이다(Siebert, 1956). 이들 四理論은 더러 제각기 다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처음 3理論은 그 역사적 출현에 있어서 西歐를 무대로 하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이론, 자유주의이론, 사회책임이론은 서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 理論은同一한 尺度에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다. 그래서 巨視的 視野에서 관찰하면 세 理論에는 유사점이 없지 않다. 특히 자유주의 언론理論과 社會책임의 言論理論은 본질적으로同一한 理論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言論理論은 앞의 세 理論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공산주의 言論理論이 깊은 의미에서 권위주의 理論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지만 이를 두 理論間에는 유사점보다는 相異점이 더 많아 두 理論은 별개의 理論으로 봐야 하겠다. 共產主義 言論理論은 1917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창당하면서 成立된, 歷史的으로도 가장 깊은 言論의 존재양식의 理論으로서 2次大戰 이후 공산권의 팽창에 따라 확대된 理論이다.(朴有鳳, 1984:10).

그리하여 세계는 아마 두개의 言論理論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의 매스 미디어 理論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세계의 매스 미디어 理論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 미디어 理論은 「自由主義, 社會責任主義 理論」(Libertarian-Social Responsibility Theories)이고 사회주의 세계의 매스 미디어 理論은 「소련 및 공산주의 理論」(Soviet Com-

unist Theory)이다. 그렇게 볼 때 사회주의 세계의 공산주의 言論理論은 현재의 세계를 지배하는 2大 言論理論의 하나이다. 이는 資本主義 言論理論과 함께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가 택하고 있는 言論 存在양식의 理論이다.

공산주의 言論理論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社會理論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좌취당하는 대중의 혁명에 의하여 전달되는 사회발전 법칙에 관한 최고의 理論이라 주장된다. 계급없는 공산주의 社會를 건설하는 최고의 科學的 社會理論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계급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두개의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는 폭력(violence) 또는 강제(coerc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설득(persuasion)이다. 폭력이나 강제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强化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두번째 수단인 설득도 첫번째 수단인 강제와 폭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데 이는 大衆에게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신시키고 당의 사회발전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大衆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설득활동은 共產主義 宣傳(propaganda)과 선동(agitation)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조직된 運動이나 당이라 하더라도 大衆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衆의 협력을 위해서는 항상 그 정책을 선전해야 하고 또한 행동의 강령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大衆이 당에 관심을 갖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宣傳과 선동의 세밀한 조직적 활동으로 이를 수 있다.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大衆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고 동원되어야 한다. 또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大衆教育이 있어야 한다.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당은 교사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당의 선전—선동(agit-pro)의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세로와지며 선전—선동의 수단에 대한 도구가 重大해진다. 言論이 바로 그 수단이다. 그래서 레닌은 말하기를 ‘言論은 과학적 社會主義의 원칙 위에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과 조직의 수단’(tool of educ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society on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socialism)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그의 *What is to be done?*?에서 言論의 大衆 선동과 대중조작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문은 대중선전자(collective propagandist)일 뿐 아니라 대중선동자(collective agitator)로 대중조직자(collective organizer)이다. 이런 점에서 신문은 전물건축에 쓰여지는 기초대(scalfolding)와 같다. 이는 전물의 전체적 外形을 보여줄 뿐 아니라 건설종사자들의 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조직적인 작업에 의한 공동건설 목표달성을 이루게 해주는 구실을 한다. 언론이 그런 구실을 한다(Buzek, 1964:38).

스탈린도 레닌의 언론의 선전 선동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정의 내리기를 「신문은 당이 매일 매사간 대중들에게 당의 필요한 말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당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정신적 교량을 놓는 데 있어서 신문처럼 융통성 있는 수단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Buzek, 1964:34).

이렇게 공산사회에서는 言論의 선전 선동역 할을 중요시하고 강조한다. 선전과 선동은 당과 국가를 이끄는 데 不可缺한 요소이다. 그만큼 공산국가는 선전과 선동의 개념은 긍정적이다. 이점 西歐 자본주의 사회의 선전·선동 개념적 가치와 다르다. 서구사회에서는 선전과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설득 활동으로 보고 있다. The Encyclopaedia Britanica는 이렇게 선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宣傳은 아주 의도적으로 大衆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만 전달하는 것(Buzek, 1964:28). 그래서 선전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더 공개적 활동으로서는 지극히 삼가하여야 할 활동이다(Encyelopaedia Britanica p.580). Encyclopaedia Americana가 정의하는 선전은 「現代 민주사회에서는 宣傳이란 Propaganda is the making of deliberately onesided statement to a mass audience. It is an act of advocacy in mass communication. Propaganda as an act of advocacy is distinguished from closely allied uses of communication as instruction, information and inquiry (Buezek, 1964:38-54).

이에 반해 공산사회에서는 선전과 선동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선전과 선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당과 국가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명

감을 갖도록 해 주고 있다. 소련의 Large Soviet Encyclopaedia를 보면 선전에 관하여는 무려 7페이지를, 선동에 관해서는 5페이지의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전을 「구두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당의 정책과 마르크스-레닌주의 理論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선동은 「대중의 정치의식화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치활동」으로 「노동자 계급과 당의 정치투쟁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레닌은 공산당의 중요한 당활동을 세가지 들었는데 그것은 理論활동(theoretical activity), 선전활동(propaganda), 선동활동(agitation)이다.

이 세가지 활동은 우선 그 활동의 중심적인 사람의 수의 크기에 대해 구별된다. 당의 理論활동은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에 의해 이끌어지는 활동이다. 당내의 극소수의 활동영역이 당의 이념적 이론 활동이다. 理論活動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당의 이념적 理論활동가 중에 극히 일부의 의식화되고 정치교육이 잘된 사람이 宣傳활동하게 된다. 宣傳活動家(propagandist)는 理論활동가 그룹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그리고 보다 많은 수의 수용대상을 갖고 활동한다. 그 대상 수용자는 당의 선동가(agitator)들이다. 이들 선동가들은 당의 理念과 理論을 적당한 방법으로 大衆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론활동과 선전활동가, 선동활동가들은 모든 당의 理念과 理論을 커뮤니케이트한다는 데에서는 같은 임무를 갖고 있다. 다만 커뮤니케이트 대상이다를 뿐이다. 또 이 세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당의 핵심적 활동이며 선전, 선동은 이점에서 자본주의 개념의 부정적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꼭 긍정적이며 적극적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선전과 선동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매스 미디어이다. 마르크스-레닌의 社會主義理論에 따르면 매스 미디어는 공산당이 계급없는 사회, 이상적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大衆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중과 당이 이념적 커뮤니케이트를 하여 그들을 교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찬넬로 보고 있다. 즉 言論을 과학적 사회주의 원칙아래 사회를 구성하고 대중을 교육시키는 도구로 생각한다(Duezek 1964:38-54).

그래서 레닌은 그의 *What is to be done?*?라는 저서의 “Can a newspaper be a collective organizer?”에서 신문은 공산주의 과업수행을 위한 대중선전

자(collective propagandist)와 대중선동자(collective agitator)일뿐 아니라 대중조직자(collective organizer)라고 하였다(Buezek, 1964:23-29). 또 스탈린 역시 신문은 당이 매일 매시간 대중들에게 당의 혁명과업 수행을 말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 소련의 교과서에서 내려진 언론이 사회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즉 공산주의의 언론은

1. 마르크스—레닌사상을 선전한다.
2. 당의 원칙을 선전한다.
3. 당의 원칙을 노동자 대중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생활의 조직자이다.
4. 일반 대중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5. 공산주의 정신을 대중에게 고취시킨다.
6. 당과 국가정책을 설명한다.
7. 자본주의자들의 전쟁도발 음모를 폭로한다(Duezek, 1964:31).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언론은 당에 종속되어야 한다. 대중선동자로 대중조직자인 사회주의 언론은 그들의 임무를 당의 기본路線에 맞추어 결정한다. 그래서 언론은 당의 교육과 안내에 따라 그들에게 부과된 과업을 실천하는데 그 과업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봉사이다. 사회주의 言論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규정하는 바 大衆선동자, 大衆宣傳者, 大衆조직자 그리고 大衆비판과 통제자라는 4가지 기본 기능을 매일마다 신문 방송의 각 면과 시간마다 그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이들이 언론 내용 결정에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共產主義 言論의 기본적 성격은 대개 세개의 특수한 성격으로 압축될 수 있다. 즉 공산주의 언론은 理念的 성격(ideooglical character), 당파적 성격(partisan character), 大衆的 성격(mass character)을 갖고 있다.

이들 세 특성 중에 언론의 理念性과 당파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학의 두 단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言論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理論의 社會思想을 철저하게 실질화하고 守護하고 응용함으로서 터득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을 言論에 적용할 경우, 공산주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은 「言論 수단에 의한 계급적 이익의 표현」(expressions of class interests by journalistic mean)이 된다.

또 마르크스-레닌주의 理論에 따르면 당파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이익 수호를 위해서는 계급적인 입장에서 모든 현실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이념적인 성격인데 이를 言論에 적용시킨 공산주의 언론은 당의 정책을 위해 모든 사건과 사회현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서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이데올로기성과 당파성은 언론의 계급적 성격을 말해 주는 同義法임을 보여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산사회에서는 유일한 「社會理論」이요 「社會科學」이기 때문에 다른 철학적 개념이나 社會理論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또 社會發展, 즉 자본주의를 붕괴시키고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社會理論으로 공산주의 이외의 이론은 기만적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당파성만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요 진정한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非당파성의 사상에 기초한 부르조아 客觀主義 社會理論은 기만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언론활동에서는 언론의 당파적, 사상적 성격을 지도적 원리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의 언론인들은 왜 특정 뉴스를 선택해서 보도하는가와 특정 주제의 뉴스 내용을 선택하는가 등 스스로의 언론활동의 이데올로기성과 당파성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하고 그래서 독자가 그 뉴스 보도, 그 뉴스 내용이 어떤 계급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말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러한 계급성과 사실성을 떠난 자본주의적 객관주의(objectivism)은 도피주의(escapism)라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적 도피주의는 社會的・계급적 평가없는 단순한 사실이나 사건제시이다. 이러한 객관주의 언론의 실례에는 미국과 서방 언론들이 고도의 기술의 모습, 소비재 생산의 제규모와 양상, 생활, 일상 생활예술 등에서 계급적 평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서방의 자본주의 언론들은 부유한 부르조아 계급이나 노동자의 착취자들만이 고급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문화 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급적 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서, 이는 언론 객관주의의 한 도피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지적된다.

공산주의 言論理論은 言論自由의 개념 해석도 자본주의 言論理論의 그것과 다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言論自由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言論은 정부나 지배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수용자나 社會에 대한 그의 責任性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言論은 권력의 제 4 부로서 다른 권력집단과 경쟁적이며 어떤 개인이나 압력에 항상 저항하면서 객관적 보도, 독립적 비평, 수용자를 위한 오락적 기능을 자유스럽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산사회에서는 언론이 제 4 부로서 독자적일 수 없다. 독자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언론의 최소규모의 조직조차 없다. 레닌에 의하면 물고기가 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울 수 없듯이 사람도 그와 속해있는 사회로부터 자유스럽고 독립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언론은 공산주의 사회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된다. 즉 공산주의 언론은 공산주의 사회의 지배세력인 노동자 계급에 속하여야 하고 또 그에 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의지의 外形的이고 정치적인 표현이므로 언론은 당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에의 종속은 진실된 自由를 위한 종속으로 본다.

레닌이 앞서 말했듯이 언론은 사회로부터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言論은 자본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고 독립적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자본가에 의한 착취로부터, 그리고 경영주의 개인주의로부터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는가에 더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형식적으로 言論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言論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資本이 없는 노동자 개인, 또는 집단에게 참된 자유스러운 言論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산주의 言論理論이다. 이점에 대해 레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부르조아 신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뉴스와 정보를 오용하고 있다.」(Buzek, 1964:168) 또 레닌은 말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言論의 자유란 부유층이 언론을 사들일 자유, 소위 여론이라는 것을 조작하고 주조하기 위해 그들의 富를 이용하는 自由를 의미하고 일반 대중의 언론의 자유란 신문 구입의 자유 뿐이고 신문 편집인은 자신의 利益을 위해 여론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言論은 자본으로부터 자유스럽고 독립적이다. 따라서 참된 言論의 自由는 공산주의 言論에 있다고 사회주의 言論理論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이해관계도 무관한 공산주의 言論에 있어서만 뉴스와 정보가 진실되고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 言論의 당의 종속성도 자본가에 의한 착취와 언론 경영주의 이익추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이와

같은 자유의 노력의 전위대인 공신당과 노동자계급에 종속되어 봉시하므로 써 참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변증법의 적용이요, 그로부터 도출된 공산 언론의 자유개념이다.

공산주의 언론의 세번째 특성으로 大衆的 성격에 있다. 공산주의 언론은 大衆이 신문을 사서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言論은 大衆으로 하여금 의식을 가지고 또 능동적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형식을 반영하고 형성하는 데 함께 하기를 유도하여야 한다. 言論은 단순한 大衆 보급보다는 大衆의 참여를 유도하는 言論으로 공산주의 言論의 大衆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III. 社會主義와 國際 미디어—TASS

社會主義 국가에 있어서 국제 미디어의 발전은 19세기부터 형성되는 국제 뉴스 카르텔과 이에 따르는 국제뉴스의 흐름의 문제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국제 미디어의 발전은 첫째, 국제뉴스카르텔의 형성, 둘째,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의 세계 통신사의 발전, 셋째, TASS(Telegrafnoe Agentstvo Sovetskogo Soluza)라는 소련의 국제통신사의 출현 및 그 발전의 세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근대적 통신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列強의 帝國主義의 팽창정책에 따라 英國·독일·프랑스·화란 등 세계의 경제시장에서의 경제정보 수집, 공급을 위한 필요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근대적 통신사들은 통신기술의 혁명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이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와 기구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정치권력에 의해 정보의 수집전달과 선전을 위한 기관으로 利用되어온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현대적 통신사는 프랑스인 Charles Louis Havas가 1835년 파리에서 Agence Itavas를 설립하여 유럽의 주요 수도에 통신원을 두고 국제뉴스의 수집과 전달을 영업으로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삼는다. Havas는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 설립 초기부터 효과적인 통신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한편 Havas 통신사에는 두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

는데 그 하나는 Benard Wolff고 또한 사람은 Julius Reuter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Havas에서 통신사의 업무를 익히고 따로 통신사를 차려서 두번 째와 세번째의 현대적 세계 통신사를 탄생시킨 사람들이다.

Wolff는 1847년 파리에 가서 당시 한참 번성하던 Havas 통신사에서 뉴스 번역원으로 일하다가 1848년에 베르린으로 돌아갔다. 베르린에 돌아온 Wolff는 처음에는 新聞에 잠시 종사하다가 신문에 상업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를 1849년에 설립하였다. 그것이 Berlin Telegraphische Anstalt이다. Wolff가 통신사를 창설한 해인 1849년에 베르린과 아헬간에 전기통신이 개설되었다. Wolff는 이 통신기술과 그 시설을 이용하였다. 또 다음 해는 베르린과 파리를 잇는 전기통신이 개통되었다. 그로부터 주요 도시를 잇는 전기통신이 줄이어 가설되었다. 社勢를 확장한 Wolff는 Wolff Telegraphisches Büro-Continental Nachrichten Büro로 개편하였다.

Havas에서 Reuter도 뉴스번역사로 일하였다. Havas에 있었던 것은 얼마 안되지만 Reuter는 여기서 통신사업에 뜻을 두게 되었다 한다. Reuter도 독립해서 통신사를 개설할 계획으로 Havas를 떠났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Havas와 Wolff가 뉴스의 국제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통신사의 장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되어 英國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런던의 금융가에 로이터 전기통신 사무소를 개설했다. 로이터는 해저통신으로 「유럽」 대륙으로부터 금융관계 뉴스를 수신하여 속보로 경제뉴스를 신문에 팔기 시작했다 경제뉴스를 전문으로 시작한 Reuter는 곧 일반뉴스의 통신사로 발전했다.

Havas, Wolff, Reuter이 세 통신사는 유럽의 뉴스시장에서 서로 팽창경쟁을 심하게 벌였으며 그 정도는 날로 치열해졌다. 이들 유럽의 三大국제통신사는 급격히 大企業으로 성장하였다. Havas는 1845년에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해외통신망을 확충하였으며 나폴레옹의 新聞規制에 따라 國內에서는 뉴스를 독점하다시피 하여 거의 뉴스를 Havas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Reuter도 통신사開設 10年도 안되어 英國全土의 신문을 상대로 경제뉴스는 물론 해외뉴스를 공급하는 현대적 통신사로 발전했다. 빅토리아王朝시대에 확장되고 있던 해저電線을 수단으로 해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제국인 Reuter 帝國을 이루고 있었다. 독일의 Wolff 통신사도 독일 통일을 목표로 삼았던 비스마르크는 國王 빌헬름과의 협의끝에 Wolff 통신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Wolff 통신은 사실상 國際道信이 되었다. 독일

이 세계로 國力を 張창시키면서 Wolff도 독일과 比유럽을 지반으로 해서 세계의 통신사로 Wolff 帝國을 발전시켜 나갔다(UNESCO, 1953:160-161).

1949년에서 1964년의 15년간은 세계의 통신사간의 「협정체결의 시대」이다. 왜냐하면 이 15년동안에 무려 30여개 이상의 통신간의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간의 경쟁과 사업의 張창 지역적 확대는 그들간의 협조도 필요하였다. 이 협정의 시대에 세계의 최대의 통신사인 Havas, Wolff, Reuter의 3會社間의 최초의 협조관계는 1856년의 협정체결이다. 이전은 잠정적 협정의 성격을 지녔는데 그 내용은 당시 아직 신문사에 대한 일반뉴스의 공급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경제뉴스만 교환하기 위한 협정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들 유럽의 3대통신사는 1859년에 와서 56년의 잠정협정을 訂定하여 경제뉴스 뿐 아니라 정치뉴스를 비롯한 일반뉴스까지도 交換하기로 규정한 새 正式협정을 체결하였다.

1870년에 3대통신사간에 뉴스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세계를 3大 뉴스 분할지역으로 한다는 협약이다. 이 협정은 전세계를 영국·프랑스·독일 3大國의 세력권에 따라 뉴스활동의 독점권을 더러 인정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은 그후 60년간에 걸친 강대국의 세계통신사에 의한 뉴스의 세계지배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通信帝國主義」를 낳게 하였다. 이 1870년의 3대통신사간의 뉴스현장에 의한 뉴스의 세계 분활통치 지역은 다음과 같다.

Havas는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집트(Reuter와 共有). 中·南美 지역에서,

Wolff는 독일, 오스트리아, 화란,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및 발칸지역에서,

Reuter는 大英帝國內 지역, 이집트(Havas와 共有), 터키, 아시아지역에서 세계 뉴스활동을 독점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분활된 뉴스의 세계분할과 3대 세계통신사의 국제뉴스 독점권은 그 후 50년동안 계속되었다. 다만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 강력히 진출하면서 미국의 통신사가 새로운 국제통신사로 모습을 갖추는 부분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좀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사회주의국에서의 유럽 3社의 뉴스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러시아 공산혁명에 의해서 1870년 체결된 소련과 발칸지역에서의 독일의 뉴스 지배권에 대해서 소련은 공산혁명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서서히 사회주의 세계 통신사의 출

현, 사회주의 뉴스 지역의 또 다른 뉴스 독점이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통신사의 출현

1870년의 뉴스혁명에 의해 러시아와 발칸지역은 독일의 Wolff에 그 지배권을 주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이 지역의 뉴스활동은 독일의 지배에 들어갔다. 1870년부터 러시아 혁명이 있게 되는 시기까지 소련 국내통신사는 Wolff 통신사와는 愛憎(Love-hate)의 관계였다. 처음에는 어차피 러시아 정부의 국심한 국내 언론의 통제 때문에 독일의 러시아 내에서의 뉴스활동이 문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뉴스의 유통은 없었기 때문에 Wolff의 외신의 국내지배가 인정되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태였다. 또한 러시아의 외부 성역의 독일의 소련 내에서의 뉴스지배를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1887에 獨露(Russian-German)의 비밀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여서 이 비밀협정하에 두 나라는 여러가지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였고 뉴스도 이러한 양국 협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의 밀월관계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1870년 협정체결이 있은 5년 후에 비스마르크가 물리나가 협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러시아 言論 지배권은 여전했으며 러시아와 발칸지역의 言論 활동은 Wolff 통신사에 의존한 상태로 계속되었다. 러시아에는 국내 통신사가 있었지만 자주적인 뉴스활동을 못하고 독일의 Wolff의 뉴스를 국제적으로 공급받고 국내적으로 전달하는 형편이었다.

러시아의 뉴스통신사가 개설된 것은 기업가와 은행가로서 러시아 신문을 창간한 바 있던 K. 트르브니코브(Trnbnikow)가 러시아 뉴스통신사(Russische Telegraphen Agental-RTA)를 1862년에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이 RTA의 통신활동은 내무부 특별 관리의 겸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오직 外國뉴스만 보도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차차 국내뉴스의 수집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뉴스의 국제카르텔에 의해 러시아의 국내통신사인 RTA는 독일의 Wolff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러시아의 국내 言論에 뉴스를 공급하는 Wolff의 러시아 통신사는 WTB였고 따라서 RTA는 WTB에 의존하고 있었다(파울로트, 1984:30).

러시아도 스스로의 국제통신사를 갖고 세계 뉴스경쟁에 나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독일의 뉴스 공급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뉴스 수집과 공급체계를

갖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1902년 2월 28일 러시아의 재무장관 Wille 백작은 국제통신사의 설립을 요망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내무장관에게 보냈다.

러시아내에서 일어난 국내 뉴스의 외국보도 뉴스 發信과 국제뉴스의 국내 보도 受信은 현재 주로 RTA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RTA는 거의 해외 통신원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뉴스나 뉴스의 發信·受信을 거의 독일의 Wolff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들어오는 外國 뉴스는 독일의 Wolff社의 검열을 받고 독일적 視覺에서 선택된 뉴스가 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소관하고 있는 재무부의 업무 내용 뉴스가 독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發信이 Wolff에 의해 거절된 실례들이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Kruglak, 1980:84-85).

현재 소련의 TASS 통신사의 책임자를 역임했고 소련의 통신사를 연구한 N.G. Pal'gunov도 당시의 러시아의 국제통신사의 필요성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일반적 기분은 RTA가 독일의 Wolff에 종속되어 있는 言論상황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자국 言論이 타국의 言論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기관의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는 지적과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일반의 비판과 여론에 밀려 1904년 당시 내무장관이 러시아황제 Tsar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 편지 내용은 “RTA는 현재 국제통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통신사가 못된다. 국제뉴스를 위해 다른 나라 통신사들과 경쟁하고 뉴스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RTA에 대한 비판의 보고였다 (Kruglak, 1980:85).

Tsar 니콜라스 2세는 기존의 RTA社를 흡수, 새로운 러시아의 통신사를 만들 것을 1904년 7월 21일에 승인했다. 그 결과 탄생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국영 통신사가 St. Peters Telegraph Agency (Peterobmger Telegraphen-agentur=PTA)이다. PTA는 재무부에 속하고 재무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운영은 재무·내무·외무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세 사람의 이사

에 맡겨지고 있었다. 이 세 정부 부처 사이에 합의에 따라 러시아 國內와 國外에 보도되어야 할 모든 뉴스가 PTA을 통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자주적이고 러시아 정부의 직접 운용하에 활동하도록 제도와 기구가 마련되었으나 국제 카르텔의 벽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 국제카르텔 앞에 러시아의 정부적 노력도 무력했다. PTA 역시 Wolff의 WTB社에 대한 뉴스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독일의 뉴스 지배권안에 있었다.

세계 1차대전은 러시아의 言論에 영향을 주었다. 독일파의 적대적 관계로 러시아 통신사의 독일 통신사 의존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통신사의 이름부터 바뀌었다. St. Petersburg가 독일말이기 때문에 Petrograd라는 러시아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WTB는 Petrograd Telegraph Agency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고 러시아 뉴스의 Wolff의 의존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프랑스의 Havas와 영국의 Reuter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PTA는 계속 정부의 운영형태로 계속 기능을 하였다. PTA의 편집자들은 Bolsheviks 혁명 이후에도 복잡한 뉴스운영 기술을 익힌 공산당의 통신업무 전문가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편집운영을 맡고 있었다.

레닌도 PTA가 갖는 국제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PTA로 하여금 Wolff 대신 들어선 외국의 국제통신사의 활동을 허용하였다 (Kruglak, 1962:18). 그러나 이러한 言論 상황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불세비키의 국제 言論 장악이 시작되었다. PTA의 국내・국외의 뉴스 독점원의 국가적 인정이 흔들렸다. 불세비키는 PTA의 혁명 이전의 편집간부를不信하고 있었다. PTA는 소련의 혁명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PTA는 정부에 충분한 국내외의 뉴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혁명적인 성격의 뉴스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PTA가 혁명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들어나자 레닌은 PTA의 개편을 단행했다. 혁명 이전부터 있었던 편집들을 혁명적인 편집자로 대체시켰다. 한편 개편된 PTA와 함께 Press Bureau of the All-Russian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Workers, Peasants and Soldiers Deputies가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PTA와 Press Bureau의 2개의 국가의 국제 言論기관이 명존하고 있었다. 이 두 통신기구는 소련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러 활동의 총돌만 일으켰다(Kruglak, 1962:10). 레닌은 1918년 9월 이 두 통신기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신사를 만들었다. Rossiyskoye Telegrafnoye Agentstvo-ROSTA가 신설되었다. ROSTA는 PTA가 국제뉴스 기능에다 宣傳기능을 가미한 역할을 하는 소련의 공식 국제통신사이다.

ROSTA 통신사는 일반적 기사보도 활동과 宣傳활동이라는 두 부분의 활동을 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ROSTA에는 記事의 취재보도를 하는 뉴스 Section이 있고 선전 선동의 기능을 하는 선전 선동부, 즉 Propagandagitation Section이 있다. 혁명이 진행되는 시대에 레닌은 ROSTA로 하여금 선전 선동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요구했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Agit-ROSTA가 널리 알려졌다. 사회주의 통신사의 선전 선동 기능의 모델이 이미 Agit-ROSTA에서 찾아보게 된다.

1925년 ROSTA는 새로운 전체 소련의 통신사로 대치되었다. 또 사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통신사가 신설되었다. Telegrafnoje Agenstwo Sowjetskowo Sojusa-TASS가 탄생한 것이다. 세계 5大 통신사의 하나이며 社會主義 세계의 대표적 통신사인 TASS가 이렇게 하여 역사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TASS는 공식적으로는 소련의 内閣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의 宣傳 선동부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정책조직 접촉 그리고 외국 통신사와의 교류와 외국에의 支社 설치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들을 당에 의해서 허락되어야 하며 외무성의 정책에 또한 부합되어야 한다.

1954년까지 TASS는 기구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部로 나누어져 있었다.

1. 國內뉴스部(Union News)
2. 國際뉴스部(Foreign News)
3. 外國뉴스發信部(News for distribution abroad)
4. 상업뉴스部(Commercial News from abroad)
5. 地方(또는 地域) 신문뉴스部(News for the local Press)
6. 휘쳐部(Feature Service)
7. 사진部(Picture Service)

이중 상업뉴스部는 독자적 활동을 벌이는 부서이지만 기구상으로는 TASS에 속해 있었다.

1954년 이후 TASS는 조직이 개편되어 국내뉴스部, 지방신문 뉴스部가 합

쳐져서 國內ニュース部로 또 國제ニュース部와 外國ニュース 發信部가 통합되어 國際ニュース部(INOTASS: inotrammy라는 말에서 연유하는데 外國이라는 뜻의 말임)가 되었다. 따라서 TASS는

- ① 國內ニュース部(RSI-Soviet Information Department)
- ② 國際ニュース部(INOTASS-Foreign Information Department)
- ③ 휘쳐부(Feature Service)
- ④ 사진부(Picture Service)로 조직이 구성되었다(Buzek, 1964:187-189).

TASS는 제 2 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의 어떠한 나라에도 支社를 들 수 없었으나 1945년 이후 세계적 국제통신사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서방의 세계통신사와 비교되는 주요통신사로 급성장했다. 1945 이후 동독과 루마니아는 소련의 점령하에 들어가므로 해서 TASS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국제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폴란드, 체코, 헝가리와 같은 다른 동부유럽 공산국가에서는 서방의 통신사와 국제뉴스 공급에 경쟁적이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1947년과 48년 이후, TASS는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東歐와 아시아 공산국가에서 뉴스활동에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TASS의 뉴스활동의 우위나 절대적 지배는 각 나라의 공산당이 자국의 言論이 서방의 세계통신사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言論정책에 의하여 TASS의 독점적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TASS는 서방의 주요 국제통신사들과도 경쟁을 벌이고 팽창의 정책을 펼쳤을 1952년 TASS는 북경, 코펜하겐, 헬싱키, 파리, 로마, 오슬로, 스톡홀름, 런던과 같은 도시에 또 레바논, 알바니아, 불가리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나라에 支社를 설치하였다. 1952년 TASS가 계약을 맺은 외국의 통신사만도 20개社인데 이중 非共產권 통신사가 11개社였다(파울로트, 1984:194). 한편 TASS 통신사의 세계뉴스 활동범위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에 대하여 1953년 유네스코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TASS에만 의존하는 지역	30.9%
② 서방 모든 통신에 의존하는 지역	58.7%
③ 美英 통신사에만 의존	14.3%
④ 프랑스 통신사에만 의존	1.8%

⑤ 세계 모든 통신사에 의존	8.4%
⑥ 통신사의 뉴스를 못받는 지역	1.3% (UNESCO, 1953)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 통신사로서는 세계 최대의 뉴스 광역을 갖고 있음을 본다. 즉 영국의 Reuter와 미국의 AP, UPI, INS를 합친 미영 통신사가 14.3%, 프랑스의 AFP가 1.8%에 따라 소련의 TASS가 30.9%의 높은 뉴스 공급률을 갖고 있었다. TASS는 세계적인 통신사가 되었고 사회주의 유일의 세계통신사가 되었다. 특히 공산권 뉴스분야에서 TASS에 의한 지배는 서방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오로지 소련에게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리하다. 2차대전 직후 동구권이 그러했다. 그러나 동구권에서 TASS의 그와 같은 절대적 지배는 얼마 가지 않았다. 1951년 중공 新華社 통신사가 급격히 성장했다. 그리고 신화사 통신사는 공산권 뉴스를 TASS와 경쟁적으로 아시아의 공산국가에게 공급했다. 東歐通信社는 TASS에 대한 의존에서 점차 탈피하려 하기 시작했다. TASS는 공산국가에서는 西方의 通信社와 뉴스공급의 경쟁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공산국가에서도 어느정도 국제뉴스 공급源이 多元化되었다. 社會主義 국가별 국제통신뉴 스 수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Kruglak, 1980:91-93).

알바니아(Albania)

제 2 차대전 이전에는 국가적인 通信社가 없었다. 알바니아 통신사(The Albania Telegraph Agence-ATA)가 설립된 것은 1945년에 이르러서이다. ATA는 알바니아 국영 통신사로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적 분별에 따라 ATA는 中共의 新華社에 더 뉴스를 의존하게 되었으며 소련과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통신사와 뉴스교환 협정을 맺었다.

불가리아(Bulgaria)

불가리아 通信社(Bulgaria Telegraftscheika Agentzia) (BTA)는 1918년에 준 국가통신기구로 출발했으며 1945년에 불가리아 공화국의 국가통신사로서 정식 발족했다. 전쟁이 끝나면서 불가리아 국내통신에 국제뉴스를 공급하는 국제통신사는 Reuter 였다.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

체코의 통신사인 Ceska Tiskova Kancelar (Ceteka)는 1918년에 설립되었

으나 2차대전시 독일군에 의해 점유되었다. 종전과 함께 Ceteka는 다시 살아나지만 그전에 Zpravodajska Agentima Slovenska(ZAS)라는 통신사가 1943년에 설립되어 잠시 있었다. 그러나 프라하가 탈환되고 자유가 되찾아지자 ZAS는 Ceteka에 계속되게 되었다. Ceteka는 TASS와 함께 Reuter, AFP, AP와도 뉴스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헝가리(Hungary)

1921년에 설립된 Magyar Tavirati Iroda(MTI)는 통신사일 뿐 아니라 매스컴의 종합회사이기도 하다. MTI는 방송사, 영화사, 광고사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에 MTI는 헝가리 공보처에 의해 접수되었고 정부의 한 기관이 되었다. 헝가리의 MTI 통신사는 TASS뿐 아니라 Reuters, AFP, AP와도 뉴스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폴란드(Poland)

폴란드의 통신사 Polska Agencja Prasowa(PAP)는 1943년 Union Polish Patriot에 의해서 설립했다. 소련은 롬포에 있는 폴란드 망명정부의 요청에 따라 소련군을 따라 폴란드에 입성했다. 1945년에 PAP는 국영통신사로서 TASS와 함께 Reuter, AFP와 뉴스 교환협정을 맺고 있다.

루마니아(Romania)

Romania의 준 관영통신사로서 출발하여 세계 2차대전중 독일 통신의 역할을 하였던 Rador와는 통신사는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민간 뉴스통신사가 되었다. 민영통신사로서 프랑스와 같은 外國의 지원을 받으면서 社會主義 言論정책에 저항하다 1949년에 해체되고 현재의 국영통신인 Agentie de Informatii Telegrafice(AIT)로 흡수되었다. AIT는 内閣소속의 정부통신사이며 TASS와 함께 AFP, AP, Reuter 등과 뉴스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유고슬라비아(Yugoslavia)

유고의 통신사는 유고의 政治的 분위기를 반영시키고 있다. 유고의 1943년에 조직된 통신사인 The Telegrafska Agencija Nova Jugoslavija(Tanjug)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모델을 본따서 내각에 속한 관영통신사

제도와는 달리 Council for Science and Culture의 Chairman이 임명한 理事會에서 이끄는 협동체의 조직성격을 띠고 있다. Tanjug는 현재 제 3 세계의 대표적 국제통신사로서도 발돋움하고 있다. Tanjug는 TASS 외에도 AFP Reuter, UPI와 뉴스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뉴스의 수용은 1950년대의 소련 TASS 통신 뉴스의 독점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세계 뉴스원을 다원화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TASS 통신 역시 50년대식의 경직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운영만으로는 西方의 세계통신사와 社會主義內에서 까지도 뉴스의 경쟁이 어렵게 되어졌다. 따라서 TASS의 세계뉴스 공급도 보다 西歐化되어가고 있다.

한편 소련의 사회주의의 국제 言論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와 같은 국제 言論人 기구를 통해 사회주의 言論理念과 言論理論을 세계적으로 특히 제 3 세계를 겨냥하여 宣傳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소련은 TASS와 같은 국제통신사에 의존, 세계 言論의 해제모니를 장악하려는 정책을 바꾸어 IOJ와 같은 言論人기구를 통해서 言論人の 「직업적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言論理念을 전파하려 하고 매스 미디어의 종속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IV.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의 社會主義 言論理念의 전파

1. IOJ의 歷史

IOJ는 1926년 창설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IFJ)와 1941년에 창설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of Allied and Free Countries(IFSAF)라는 두 국제 言論기구가 2차대전 중 本部를 유럽의 파리에서 영국의 런던으로 옮긴 후 1946년에 이 두 단체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국제 言論人 기구로서 그해 6월에 창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世界의 言論人 기구로서는 가장 범世界的이며 국제적인 조직체였다. 21個國의 言論人們이 코펜하겐에서 모여 시작한 IOJ는 東西진영 공산 非공산국가 言論人 모두를 대표하는 세계 言論人の 모임이다.

IOJ의 본부는 런던에 자리하였으며 IOJ의 초대 회장으로 英國의 言論人

Archibald Kenyon이 선출되었다. Kenyon은 이미 IFJ의 IFJAFIC의 兩기구의 會長을 역임한 바 있는 저명한 국제 言論이였다. IOJ는 그 국제적 대표성이 인정받는 국제 言論단체가 되었으며 1947년에는 UN의 言論 자문기구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IOJ가 UN의 UNESCO 기구와 인연을 맺게 되고 제3세계와 연관을 갖게 되는 시작이다.

그런데 IOJ는 범세계적 기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코 단순할 수 없었다. 초창기부터 사회주의 국가 言論人們은 西方세계의 言論人們보다 IOJ 内에서의 조직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하였다. 이미 공산권 언론인들이 IOJ의 주요 집행위원회의 요직을 점유하였다. IOJ의 내부에서 공산권 言論人們과 서방 세계 言論人們과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대립현상이 생겨났다. 그러나 자본주의 言論人과 공산주의 言論人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첨예하게 표현된 것은 창설 1주년이 되는 1947년에 있었던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IOJ 제2차 세계 言論人 大會에서이다. 두 진영의 言論人간에 理念的 분쟁이 터지고 말았다. 여기서 IOJ의 本部를 영국의 런던에서 체코의 프라하로 옮길 것이 결정되었다. 프라하의 本部를 영구화시켰다.

IOJ 내에서의 자본주의 言論과 共產主義言論과의 理念 분쟁은 1948년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1948년 9月 부다페스트에서 IOJ의 집행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다수인 공산권 言論人們은 西方言論人們을 가리켜 전쟁도발주의자들(Warmonger)라고 비난하는 IOJ 결의를 초안하자 美國代表 언론인들은 IOJ를 탈퇴해버리고 말았다.

IOJ 회장 Kenyon은 IOJ가 이미 소련 공산주의의 한 국제적 언론인 단체로 변모된 것을 보고 IOJ가 코민포ーム의 한支部(a branch office of the Cominform)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1949년 10월에 회장직을 사임했다. 1950년에 이르면 소련의 스탈린과 유고의 티토와 갈라지면서 IOJ 내에서도 유고와 소련이 갈라졌고 IOJ로부터 유고 言論人은 축출당하였다. 그리하여 IOJ는 소련의 해제모니 속에 들어왔다. IOJ가 소련의 言論 이데올로기 단체가 되자 非공산권 言論人們은 IOJ를 탈퇴하였다.

1952년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言論人 모임에서 西方言論人們은 IOJ에 흡수되었던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를 다시 부활시켰다. IOJ는 1950년 6月 UN의 자문역할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미 IOJ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성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Popov, 1973:217).

제 3 차 IOJ 총회가 1950년 9월 헬싱키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 프랑스의 言論人 Jean-maurice Hermann이 새로운 IOJ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Hermann은 親共言論人으로 프랑스 言論勞組의 사무총장이었으며 파리의 共產系 月刊誌 Cahiers Internationaux의 편집국장이었다. Hermann은 IOJ 회장을 1976년까지 계속하였다. 이어서 제 3회 IOJ 회장은 화란의 言論學者 Koal Nordenstreng으로 현재까지 회장직을 갖고 있다. Hermann의 회장 재임 중 여려명의 부회장 역임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소련의 언론 노조위원장, 폴란드의 언론 노조위원장도 있었다.

IOJ 研究家 Milorad Popov에 의하면 IOJ는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극단적인 종파주의적 성격(a highly-sectarian nature)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전투적이고 공격적이었다. 한국 전쟁과 미군의 참전에 대하여 전쟁 도발자라고 맹렬히 비난하였고 국제적으로 선동하였다. IOJ는 자본주의 社會의 言論人에 대해서 말하기를 言論과 言論人の 自由는 자본가와 그들의 독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Free of the press and journalists must be defended against the influence of monopoly and finance group)고 하면서 전세계의 言論人們은 노동대금을 탈취하는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체의 언론활동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5년부터 소련의 대외정책이 온건적인 노선을 택하고 평화적 표현을 함에 따라 IOJ도 西方言論을 보다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IOJ를 탈피하고 따로 결성한 西方言論人기구인 IFJ에 대해 화해로 재통합운동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범세계적 言論人 기구로 재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IFJ와 우선 협조를 제의했다. IOJ는 IFJ에게 국제 言論人會議의 공동주최를 제안했다. 南美 우루과이 수도 Monte Video에서 南美지역 言論人會議의 공동개최하는 것과 유럽에서의 국제 言論人 회의의 공동개최를 IFJ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IFJ는 두 大會 공동주최 모두 거절하였다. IOJ는 南美 言論人 모임 계획은 포기했고 유럽의 言論人 모임만 계속 추진하였으며 1956년 개최하기로 연기하였다. 유럽에서 개최할 계획인 세계 言論人 모임은 1956년 9月에 핀란드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International Committee for Cooperation of Journalist(ICCJ)를 조직해 봤지만 여전히 IFJ 회원을 이 모임에 끌어들일 수가 없었다. ICCJ의 대부분의 집행간부는 IOJ의 지도적 인물들이었다. 1960년 10月 IOJ는 오스트리아의 Baden에서 국제

言論人 모임을 가졌지만 非공산권 언론인은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1950년대의 IOJ의 정치적 서방공세와 그 영향은 어느정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폴란드와 청가리 사태는 IOJ 내에서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IOJ가 활발하게 理念활동을 하게 된 것은 1958년 Bucharoit에서 제 4 차 총회가 개최되면서부터이다. 이 4차총회에서 IOJ는 Marxist 言論 이데올로기를 제 3 세계로 향하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 공산주의 言論理念을 공산국가에게 뿐 아니라 제 3 세계 국가의 言論人에게 「宣傳 선동」하는 활동을 벌리기 시작했다. IOJ는 1958년부터 제 3 세계, 言論人에게 마르크스 理論을 전파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제 3 세계 言論人们的 理念교육 프로그램이다.

불가리아에 제 3 세계 言論人们的 교육과 研修를 위한 숙소를 건립하였다. 또 IOJ에는 아프리카 언론인 훈련부를 특별히 신설했다. IOJ의 제 3 세계 언론인 교육은 특히 아프리카 언론인에 대해서 크게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IOJ는 아프리카 언론인에 대한 이념교육에 중점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961년 5월 Mali 공화국의 수도 Bamako에서 All-African Journalists Conference, 즉 全 아프리카 言論人 大會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Pan-African Union of Journalists(PAJU)가 탄생하였다. PAJU는 기구상으로는 IOJ와 별도의 조직인듯 보이지만 실제로 두 기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IOJ의 마르크스 言論理念을 수용 전파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IOJ는 아프리카에 이어 南美 言論人에 대한 理念的 침투활동을 벌렸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南美의 言論조직과 연계를 맺고자 하였다. 1962년 1월 IOJ는 Commission for Information and Cooperation among Latin American Journalist(CILPLA)를 만들고 그 本部를 남미 우루과이의 Monte Video에 두었다. IOJ는 Monte Video의 CILPLA를 통해서 南美의 言論人們과 관계를 맺고 각종 국제회의와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南美 言論에 이념 전파를 시도했다. 1964년 5월에는 “Enlarged Secretarial” 모임 개최, 1965년 5월에는 Latin American Journalist Congress를 개최하였다. 또 IOJ 집행위원회가 Cuba에서 그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Cuba, Mexico, Bolivia, Peru 등 의 言論이 각각 단체회원으로 IOJ에 가입되었다. 1962년에는 IOJ 5차총회가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 주제로 제 3 세계의 신식민지에 대한

항거의 지원이었다. 제5차 총회에서 IOJ 회장은 그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OJ의 자유수호를 위한 노력은 억압 세력에 대한 투쟁 뿐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윤추구를 위한 신문의 산업화에 대한 투쟁이다. 개발도상국의 言論은 新植民主主義者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자유스럽고 진실된 국민적 신문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IOJ는 공산권 言論을 위한 지도이념의 전파에서 제3세계의 反帝國主義 운동과 마르크스 言論理念의 전파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제3세계 言論에 침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2. IOJ의 조직

IOJ는 言論人 노동조합, 言論기관 및 단체를 단위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1950년부터는 言論인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에 회원수가 110,000명이였고 회원국은 80개국이였다(IOJ, 1976: 13). 1975년에는 회원수가 150,000으로 늘어났고 회원국도 109개국으로 늘어났다.

회원 총회는 IOJ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총회는 매 4년마다이며 個人 회원이나 20명 이내의 단체회원은 투표할 자격이 없다.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집행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소집되어야 한다. IOJ의 會長團은 會長, 총서기, 부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관掌하는 책임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IOJ 간행으로는 격주간의 Journalist Affairs, 月刊으로 The Democratic Journal이 영어, 프랑스語, 소련어, 스페인語 등 4個國語로 간행된다. 1965년부터는 아랍語로도 간행되었다.

IOJ는 1962년 국제 보도사진위원회를 두고 마르크스주의의 言論과 제3세계의 신식민주의 비판言論을 널리 전파하는 국제보도사진전을 유네스코 지원하에 열었다. IOJ는 각종 국제 언론인의 모임을 주관하였는데 1957년 10월에는 불가리아에서 농업 言論에 관한 국제회의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Foundation을, 1958년에는 부카레스트에서 보도기자 국제회의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porters를, 1959년에는 또 부카레

스트에서 국제 스포츠 편집기자 국제회의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ports Editors를, 같은 해에 또다시 프라하에서 外信記者 국제회의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oreign Affairs Editors를, 1961년에는 東西言論人 共同회의인 Round Table Conference of Eastern and Western Journalists, 1965년에는 부카레스트에서 발칸지역의 言論人 모임인 Conference of Journalists for the Balkans를 개최하고 각종 言論人을 초청하는 국제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국제 言論人 친목활동 및 理念활동을 벌렸다. 특히 제3세계 言論人을 겨냥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3. 세계 社會主義 言論理念의 중심기구로서의 IOJ

IOJ는 社會主義 국가의 言論人에게 마르크스주의적 言論理念을 전파하고 사회주의 言論人の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社會主義 言論理論의研究中心 기구이다. 근래에는 社會主義 국가의 言論人에게 뿐 아니라 제3세계 言論人에게도 마르크스적 言論理念의 理論을 연수시키며 그 전파의 활동을 벌리고 있다.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제3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신정보질서운동의 理論的 공급처이며, 후원자가 IOJ이다.

IOJ가 南美,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言論人에게 社會主義 言論理念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1955년경 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IOJ는 그의 公式理念誌인 Democratic Journalist誌는 기타 IOJ 간행물을 통해서 社會主義 言論人을 물론 제3세계 言論人에게 매스 미디어의 기본기술을 습득케 하는 내용을 공급하고 전파하였는데 이러한 글 속에서 자본주의 매스 미디어의 理論이나 실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하여 IOJ는 제3세계 言論人們에게 자본주의 言論理論과 理念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言論理論과 그 理念을 제시해 왔다. 제3세계 내에서 社會主義 言論理念의 전파활동으로서 IOJ는 1958년에 IOJ 내에 아프리카부를 설치하고 불가리아에 제3세계 言論人 훈련기숙소를 가졌고 1962년에 큐바에서 IOJ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며, 큐바,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등을 IOJ에 가입시켰다.

1962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IOJ 총회에서 會長 Jean-Maurice Hermann은 IOJ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제3세계 言論人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였다. Hermann은 서방 매스 미디어의 言論 독점을 공격하는 한편

제 3 세계 言論人の 대우가 보다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부추겼다. 또 서방 미디어의 상업주의와 言論 자본가 계급의 言論 노동자의 착취와 言論의 이윤추구에 대항하여 제 3 세계 言論은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Hermann의 주장은 1970년대의 유네스코의 국제 신정 보질서운동의 기저가 되었으며 유네스코 주최의 정부 각료 커뮤니케이션 국제회의에서 결의된 제안에도 담겨 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서방 言論과 제 3 세계 言論의 理念論爭, 국제신정보질서 논쟁에서 IOJ는 제 3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主權理論을 공급해 주었으며 커뮤니케이션 政策의 필요성을 제 3 세계에 알려주었고(Popov, 1973:217) 그리하여 IOJ는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1976년 San José 커뮤니케이션 회의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즉 IOJ는 제 3 세계의 言論정책으로 「윤리요강(rule of journalistic Ethics)」를 마련해 주었는데 유네스코는 이 윤리요강을 인정하는 매스 미디어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그것이 San José 회의이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M' Bow와 제 3 세계 대표, 미국 Freedom House와 Inter-American Press Association(IAPA)의 言論代表들이 서로 팽팽히 맞서는 서방 言論과 제 3 세계 言論이 대립하는 회의에서 제 3 세계의 결의로 결정되는 데에 IOJ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 3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主權論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서방의 言論이 「自由유통」理論 대신 커뮤니케이션의 국가 주권론과 커뮤니케이션의 국가 정책론이 주장되었다.

San José의 言論 윤리요강의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南美 地域에 政府가 운영하는 通信社를 설립한다.
2. 서방 세계 통신사에 대한 南美 政府의 통제권한을 견제한다.
3. 민영, 공영 전반적인 규제의 국가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4. 언론인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교육과 연수
5. 언론정책을 발전시키는 국가 press council 설치(Sussman, 1977a:23)

이와 같은 제 3 세계의 언론 선언은 언론에 대한 국가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社會主義 言論理論을 서방의 自由言論(Free press)에 대치시키는 것이며 이는 IOJ를 통한 소련의 마르크스주의와의 理論的 연계인 것이다.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주권과 커뮤니케이션 「윤리요강」에 관하여 1975년의 유네스코 파리 회의에서 그리고 1976년 Nairobi 총회에서 소련은 발의하였으며 제3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주권 운동을 추진해 하는 기록제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표면으로 주도하는 기구가 IOJ였다.

한편 IOJ는 言論人의 마르크스주의적 言論研修 프로그램을 종래의 公產主義 국가의 言論人에서 非公產 제3세계 言論人에게로 확대하였다. 제3세계 言論人은 연수와 교육을 위하여 부다페스트와 동독에 초청되었다. 동독에는 제3세계의 新聞 言論人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며, 부다페스트에는 放送 言論人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IOJ에 의하여 마련되는 이 두 연수기관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른바 「反帝國主義와 反植民主主義의 민주적 言論人(Anti-Imperialistic Anti-Colonialistic and Democratic Journalists)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위 人間主義的・진실한 진보주의적 言論(humanistic, honest, truthful and progressive Journalism)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IOJ의 교육을 받은 제3세계 言論人們은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IOJ와 연관을 맺게 된다. 그리하여 IOJ는 제3세계 言論人에게 社會主義의 言論理論과 言論理念을 공급하고 전파한다.

IOJ는 제3세계 言論의 社會主義 言論理論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IOJ 대표들이 南美, 아시아,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時事적인 정치문제를 이슈로 하여 “Solidarity”라고 하는 회의를 가져왔다. 베트남전쟁, 한국전쟁 큐바, 아랍, 이스라엘 분쟁, 南美 군사독재 등을 이슈화시켜 이에 대한 제3세계의 투쟁캠페인을 위한 Solidarity Conference를 갖는다. 社會主義 국가 言論人們은 Solidarity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反제국주의 투쟁의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이해한다. 1969년에 평양에서도 IOJ의 Solidarity가 열렸는데 90개국의 220명의 言論人이 참가한 Solidarity였으며 Anti-American, Anti-imperialist의 Solidarity였다. 1971년에는 미국에서도 Solidarity가 열렸는데 그것은 oppression of colored minority in the United States를 캠페인하는 Solidarity struggle이었다. 레닌탄생 100주년을 기해서 레닌그라드에서 소련과 공동주최로 IOJ는 「Leninist Criticism of the reactionary essence of the bourgeois press」라는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에 社會主義 言論人은 물론 제3세계 言論人을 참여케 하여 제3세계 言論을 社會主義 言論으로 이끌어 올렸다(Sussman, 1977a:53).

IOJ는 제3세계 言論人들과의 연계의 새로운 시도는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신정보질서운동의 진원을 통해서 활발해졌다. IOJ는 이미 1962년 8月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던 IOJ 5차총회에서 서방의 「neo-colonialist plot」에 대항하는 제3세계 言論과 言論人을 지원하는 노선을 선언한 바 있다. Lenord 회의에 참석한 유네스코의 한 고위간부 대표는 말하기를, “유네스코는 IOJ와 서로 많은 공통점, 많은 공통목표가 있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IOJ의 유네스코 자문역의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Orth, 1963). 마침내 1969년에 IOJ는 유네스코의 공식 자문기구가 되었다. 이때부터 IOJ의 유네스코를 통한 제3세계 言論人과의 관계는 활발하여졌고 날로 심화되어 왔다. UNESCO와 IOJ가 공동주체하는 국제행사도 빈번해졌다.

1971년 1월 IOJ의 제7차총회가 Havana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IOJ는 보다 유네스코와 긴밀해질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유네스코가 IOJ 내에서 좀더 활발해질 것을 요구하였다. 1974년 6월 IOJ는 유네스코와 부다페스트에서 “言論人 教育에서의 새로운 경향과 발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를 공동주최하였다. 1975년 12월에 IOJ와 유네스코는 또다시 공동주최로 아프리카 言論인의 연수와 교육의 모임을 가졌다. 1977년 11월에 IOJ와 유네스코는 또다시 공동주최로 decolonialization of information이라는 주제와 言論人 회의를 가졌다. 한편 IOJ는 파리에 IOJ 연락사무소를 열고 유네스코와 광범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IOJ 회의때마다 유네스코의 고위간부는 반드시 참석하게 되었다. IOJ는 제3세계 言論의 사회주의 이념의 「의무화」 모임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IOJ는 1976년 유네스코의 Nairobi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IOJ의 유네스코 밀착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言論理論과 言論理念을 효과적으로 제3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제3세계의 「국제신정보질서」에는 사회주의 言論理論과 理念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국제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종속론이나 선정보질서의 문제는 자본주의 미디어의 종속과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문제에만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만큼 사회주의적 국제 미디어가 있고 사회주의적 言論 종속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社會主義的 커뮤니케이션 질서나 미디어 종속의 문제는 너무나 그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다. 세계의 커뮤니케

이선 질서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미디어 질서와 함께 사회주의적 미디어 질서가 다같이 새롭게 재편성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미디어의 신질서論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朴有鳳

- 1984 “共產主義 言論理論과 소련의 言論”, 新聞學報 제17호, 韓國新聞學會.
 파울로트
 1984 소련의 보도기 관과 정보정책, 최정호역, 정음사.
 Atwood, L. Erwin
 1978 “Daily Newspaper Contribution to Continuity Discussion,” *Journalism Quarterly*, 55.
 Atwood, L. Erwin and Bullion, Stuart
 1982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New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Bailey, George A. and Lichty, Laurence W.
 1972 “Rough Justice on a Saigon Street: A Gatekeeper Study of NBC's Tet Execution Film,” *Journalism Quarterly*, 49.
 Bullion, Stuart
 1982 “New World Information Order,” in L. Erwin Atwood et al.,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New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Buzek, Antony
 1964 *How Communist Press Works*, N.Y.: Fredric.
 Cohen, Bernard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Galtung, John and Ruge, Mari
 1965 “The Structure of Foreign News,” *Journal of Peace Research*
 Gieber, Walter
 1956 “Across the Desk: A Study of 16 Telegraph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33.
 Hart, Jim,
 1933 “The Flow of International News into Ohio,” *Journalism Quarterly*.
 Hester, Al
 1974 “International News Agencies,” in Alan Wells(ed.) *Mass Communication, A World Views*, Palo Alto.: Mayfield Publishing Co.
 IOJ
 1976 *Thirty Years of the IOJ in Actor*, IOJ Pragne.
 IPI

- 1953 *The Flow of the News*, Zürich: IPI
Kang Hyeon Dew and Lee Jae Won
- 1986 "Professional Socialization of Newspeople: A Test of Dependency through Comparative News-Value Judgement," *The Third Channel*, Seoul: International Broadcasting Society Press.
- Kruglak, Theodore E.
- 1960 *The Two Faces of TASS*, McGraw-Hill Book Co.
- 1980 "The Role and Evolution of Press Agencies in the Socialist Countries," in Bohdan Harasymiw (ed.) *Education and the Mass Media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Praeger Publication
- Liebelz, B.H.
- 1966 "Decision-Making by Telegraph Editors—AP or UPI?" *Journalism Quarterly*, 43.
- Lippmann, Walter
-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Brace.
- McCombs, Maxwell and Show, Donald L.
- 1977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Issues*, St. Paul West Publishing Co.
- McLeod, Jack et al.
- 1974 "Another Look at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Communication Research*, 2.
- Oliver, Boyd-Barrett
- 1980 *The International News Agen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Orth, Robert
- 1963 *International Communist Front Organization: Their Nature and Function*, Muzich.
- Pool, Ithiel de Sola
- 1981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in an Interdependent World: A Growing Flow and Attempts to Restrict It," in U.S.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ed.) *Toward an American Agenda for a New World Order of Communications*.
- Popov, Milorad
- 1973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 in Witold Sworaskowski, *World Communication: A Handbook 1918~1965*,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Schramm, Wilbur and Atwood, L. Erwin
- 1981 *Circulation of News in the Third World Study of Asia*,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in Hong Kong.
- Show, David and Bowers Thomas,

1973 "Learning from Commercial," *paper presented to the AEJ*, Fort Collins Co. August.

Siebert, Fred S., Peterson, Theodore and Schramm Wilbur

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Sussman, Leonard R.

1977a *Mass News Media and the Third World Challenge*,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1977b "Developmental Journalism: The Ideological Factor," in *Third World and Press Freedom*, Medford Mass.

UNESCO

1953 *News Agencies*, Paris.

Weaver, David, McCombs and Spellman, Charles

1975 "Watergate and the Media: A Case Study of Agenda-Setting," *America Politics Quarterly*, 3.

White, David Manning

1950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ng of News," *Journalism Quarterly*.